고달면 안개농촌체험휴양마을.

오곡면 봉조농촌체험휴양마을.

오산면 오지봉농촌체험휴양마을.

곡성 농촌체험마을서 '거리두기 여행' 하세요

안개·봉조·오지봉 3개 마을
군, 비대면 여행지로 추천
힐링·전통·체험 3박자 만족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곡성군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여행'을 추천했다.

곡성군은 힐링·전통·체험의 3박자를 만족할 수 있는 비접촉(언택트) 여행지로 농촌체험휴양마을 3곳을 추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어서다.

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방문객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곡성군 고달면 안개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청정 자연환경과 국가지정 섬진강 침실습지를 품고 있다.

봄에는 꽃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여름에는 목동제 저수지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수면에 비친 밤하늘의 별빛이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 가을과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강변에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과일 농장 체험과 재활용품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자전거 타기 등 체험 거리도 다양하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오곡면 봉조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모내기와 감자·자두·매실·옥수수·알밤·감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떡메치기, 고구마 핫도그 만들기,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도 가능하다.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을 원한다면 심청골 오산면에 있는 오지봉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제격이다. 최근 권역 사업을 통해 리조트급 시설이 새로 조성됐다. 물놀이 시설과 야영장, 숙박 장소 등이 잘 구비돼 있고 계절에 따른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율촌도서관 '전래동화 특화 도서관'으로 재개관

어린이 편의공간·IT기술 체험관 마련

여수시립율촌도서관이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 도서관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과 율촌면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촌도서관 재개관 기념행사를 했다.

지난 2005년 개관해 올해로 15년 된 율촌도서관은 국비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내진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 어린이 중심 편의 공간을 도입해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서관 1층은 '전래동화' 콘텐츠에 VR, AR, 인터랙티브, 크로마키 포토존 등 IT기술을 반영한 체험관과 자료실이 들어서 다양한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꾸몄다. 2층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휴게공간을 갖췄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율촌도서관이 책으로 성장하는 공간,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4차 IT산업이 접목된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의 이순신도서관을 개관했다. 최근 소라 죽림지구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

여수시립율촌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여수시 제공〉

곡성 옥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곡성 옥과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직매장이 지난 19일 정식 개장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직거래장터'다.

옥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990㎡ 규모로, 로컬푸드, 공산품, 정육·수산, 베이커리 매장 등을 갖췄다. 120여명의 농가가 참여해 250여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앞으로 출하농가 교육을 통해 생산농가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고 희소성 있는 과채류 입식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할 방침이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인에게는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와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생산농가 대표, 농협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 옥과농협은 지난 19일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직매장을 정식 개장했다. 〈옥과농협 제공〉

순천시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2자녀 이상 확대

7월부터 둘째 출산가정 혜택 적용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받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 이용(1년간) 등이다.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미래 선진농업 이끌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20개월 과정 교육생 52명 모집

고흥군은 미래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52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 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20개월 과정이며, 오는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순천대에서 이론과 교육형 실습이 진행된다.

이후 고흥군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경영형 실습을 통해 스마트팜 온실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기간에 숙식도 제공된다.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후 성적 우수자에게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많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준공되면 1인당 330㎡(100평) 이상의 온실을 직접 경영해 볼 수 있다"며 "농업분야 취업 및 창농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